유적지 순례 105

始祖 太師公과 羅末의 政勢 ②

시조 태사공과 라말의 정세

△공산 전투 추상도 신숭겸과 왕건

〈지난호에 이어〉

견훤(甄萱)의 경주(慶州) 침공(侵攻)과 공산(公山) 전투

경애왕 4년 9월 견훤은 대거 출병하여 근품성(近品城-문경 신양)을 취해 불지르고 고울부(高鬱府-영천)를 취한 후 경주로 향했다. 고려왕이 고려에 구원을 청하므로 10월에 왕건이 출병하는 도중 견훤이 갑자기 경주로 쳐들어갔다.

경애왕은 방비도 없이 비빈과 함께 포석정(鮑石亭)에서 주연을 베풀던 중 적을 만나 왕비와 함께 남쪽 이궁(離宮)으로 돌아 갔는데 여러 시종과 신하 궁녀, 영관들은 모두 적병에게 주살되었다. 견훤은 군사를 놓아 과거 자신이 병사로 충성했던 도성을 약탈하고 궁궐에 거처하며 경애왕을 찾아내 눈앞에서 핍박해 자살시키고 왕비는 끌어와 강제로 난행하였다. 그리고 왕의 외사촌인 김부(金傅)를 왕으로 세워 놓고 왕의 아우 효렴과 영경은 포로로 삼고 재화와 보물, 병장과 백관 중의 기교(技巧)자를 데리고 돌아갔다.

한발 늦게 구원 나온 왕건은 5천을 거느리고 견훤이 회군하는 길목인 공산(公山)아래 동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회전하였다. 공산은 대구 동북쪽 고지대로 선덕여왕 때 사직단(社稷壇)을 세운 명산으로 삼산(三山)오악(五嶽)이 있는데 그중 동수는 동화사가 있는 계곡이다. 이때가 11월인데 견훤과 패한 적이 없는 왕건이 참패하여 손발과 같은 장수 김락(金樂), 신숭겸(申崇謙)을 잃고 겨우 탈신하여 퇴각하였다. 견훤은 승세를 몰아 대목(칠곡부근)을 취했다. 이로서 견훤은 일거에 신라의 왕도를 점령하고 후백제에 복응(服膺)하도록 예속시키고 고려왕의 친정군을 무찔러 궤멸시켜 후백제의 주도 하에 후삼국통일의 가시권에 들어오는 형세가 되었다.

궁예(弓裔)는 원래 성이 김씨로서 신라 47대 헌안왕(憲安王) 의정(誼靖)의 서자였다. 설에 28대 경문왕(景文王)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외가에서 출생하였는데 그때 지붕 위에 무지개와 같은 흰빛이 하늘에 다았다. 일이 궁중에 알리자 일관(日官-천문관상관)이 임금에 아뢰기를 "이 아이는 중오일(단오)에 태어나고 이가 먼저 난데다 광염(光焰)이 이상하니 나라에 이롭지 못하겠습니다. 기르지 마소서" 하였다. 왕이 중사(中使-내시)에게 명하여그 집에 가서 아이를 죽이라 하니 사자가 이르러 아이를 빼앗아 누각 아래로 던졌다. 이에 유비(유모계집종)가 밑에서 몰래 받다가 손가락이 한 눈을 찔러 애꾸가 되었다. 유비가 안고 멀리 도주해 고생스럽게 길렀다. 나이 10세가 되자 유희(遊戱)를 일삼아 말성을 부리자 유모가 말 하기를 "도련님이 나서 나라의 버림을 받은 것을 내가 남모르게 길러 오늘에 이르렀는데 도련님과 나는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찌하리오"하였다. 어린 궁예가 울면서 "정 그렇다면 내가 멀리 가서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않게 하겠소"하고는 유랑을 떠나 세달사(世達寺)의 동자승이 되니 지금 개성 풍덕에 있던 흥교사였다. 이름을 선종(善宗)이라 자호하고 장성하면서 승려의 계율에 구애받지 않고 기상이 활발하여 담기(膽氣)가 컸다. 불공을 드리는 행렬에 나갔는데 까마귀가 아첨(牙籤-상아 찌)을 물고가다 궁예의 바리때에 굴러 떨구었다. 거기에 왕(王)자가 써있는지라 이를 비밀히 감추고 자부심을 길렀다.

이윽고 신라가 쇠퇴함을 보고 궁예는 무리를 모으며 진성여왕 5년 891년에 죽주(안성)에서 웅거하는 도적 기훤의 막하로 투귀하였다가 기훤의 휘하인 원희, 신훤 등과 결탁해 이듬해 북원(원주)의 도적 양길에게로 갔다. 양길이 일을 마끼고 군사를 나누어 주어 동쪽을 공략케 하니 궁예는 치악산 남쪽의 석남사에 나가 주천(원성군), 내성(영월), 울오, 어진 등 고을을 쳐 모두 항복시키고 진성여왕 8년 하슬라(강릉)으로 들어가니 휘하 병력 3,500에 달했다. 이를 14대로 나누어 김대검, 모흔, 장귀평, 장일 등으로 사상(부장)을 삼고 사졸과 더불어 빼앗음을 공평하게 하니 중심이 그를 경애하고 두려워하며 장군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궁예는 저족(인제), 생천(화천), 부약(김화) 금성, 철원 등 성을 격파하니 그 성세가 커지면서 패서(浿西-예성강 이북)의 여러 고을에서 무리가 와서 속속 항복하였다. 궁예는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고 철원에서 관직을 설치하여 임금행세를 하였다. 진성여왕 9년 895년 한산주의 여러 관내 10여성을 공략하고 송악군의 왕융(王隆)이 귀의해 오니 그를 금성 태수로 임명했다. 그리고 이듬해 왕건에게 명하여 송악에 새로 성을 구축케 하고 왕건을 성주로 삼았다. 그래서 孝恭王 2년 관내 30여 성을 취하여 도읍을 송악으로 옮겼다. 궁예는 왕건을 보내 비뇌성에서 양길을 대파하니 양길은 쇠망하고 900년 국원과 청주를 평정하니 경기, 황해, 평안, 강원, 충청도에 걸쳐 광대한 영역을 확보하였다. 이해 견훤이 완산에서 후백제를 세우고 왕이 되었는데 궁예는 901년 임금이 되어 고려라 하니 후고구려였다.

왕건의 나주포구 회전

왕건은 바다에서 중국으로 가는 후백제의 사신배를 잡고 나주에 가 전함을 수리하여 광주(光州)를 치고 진도군(珍島郡)과 고이도성(皐夷島城)을 함락하였다. 이듬해 910년 견훤은 나주 포구에서 왕건과 회전하여 또 크게 패했다. 다시 이태 뒤 912년 견훤은 이와 같은 나주 일대를 수복하고자 대거 군사를 동원하여 목포(木浦)에서 덕진포(德津浦:영광)에 이르기까지 전함을 배열하였다. 왕건이 규모가 훨씬 못미치는 병력으로 덕진포에 이르니 적군은 종횡으로 잇대어 바다와 육지에 군세가 심히 강성하므로 장수들이 겁을 먹었다. 왕건이 '군사가 이기는 것은 화합하는데 있지 수가 많은데 있는 게 아니다' 하고 급히 치니 적의 전선(戰船)이 조금 물러갔다. 이때 바람이 부는 것을 이용하여 화공(火工)을 하자 견훤의 연이은 배들이 연소(延燒)되며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죽는 자가 태반이고 목을 벤 것도 5백 급(級)이나 되었다. 마치 중국 삼국시대의 적벽대전(赤壁大戰)을 방불케 하는 이 수전(水戰)에서 훨씬 강대한 병력으로 대패한 견훤은 조조(曹操)가 그렇게 했듯이 작은 배를 타고 빠져나가 재빨리 도망쳐 버렸다. 왕건은 6년 전 상주에서의 회전 이래 세 번째 견훤과 직접 대전하여 모두 완승한 것이다.

이처럼 큰 전승으로 나주와 서남해 일대를 안정시켰는데도 상이 내려오지 않자 김언 등이 불평하니 왕건이 '부디 태만하지 말라.

지금 주상(主上)이 죄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뜻을 얻게 되어 조정에 있는 자는 각기 몸을 보전하지 못하니 밖에서 정벌에 종사하여 힘써 나라를 위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하므로 모두 그 말을 따랐다. 이윽고 반남현(潘南縣:나주 반남면) 포구에 이르러 적의 경계에 간첩을 놓았는데 압해현(壓海縣:무안 압해면)에 해도 출신의 적장 능창(能昌)이 있어 패잔병을 불러 수습학고 갈초도(葛草島)의 도적과 결탁하여 왕건이 이르면 기습하고자 요해처를 지키고 있었다. 능창은 하도 수전에 신출귀몰하여 별명이 수달(水獺)이었다. 왕건이 '능창이 내가 올 것을 알고 반드시 갈초도의 도적과 함께 변을 꾀할 것이다. 적의 무리가 적지만 우리의 앞길을 막고 뒤를 끊으면 승부를 알 수가 없을 것이다' 하고 가만히 헤엄을 잘 치는 자 10여 명에게 갑옷을 입히고 창을 주어 가벼운 배를 타고 가 갈초도 나룻가에 매복케 했다. 과연 작은 배 한 척을 잡아 보니 바로 능창인지라 산 채로 궁예에게 보내 목베게 했다.

그러는 동안 궁예는 또 국호를 태봉(泰封)으로 고치고 연호도 바꾸었는데 왕건의 벼슬을 파진찬(波珍飡:태봉 9관등의 5위)으로 올리고 시중(侍中)을 삼아 불러들이니 37세의 왕건은 백관의 우두머리에 있게 되었다. 왕건은 궁예의 포학과 변덕에 보신하고자 많이 억제하고 근신하였으나 억울하게 참소당함을 보고는 묵과하지 못해 궁예에게 해명하고 충간하여 모두 구해 주니 조신(朝臣)과 장사(將士)의 마음이 쏠리고 쫓게 되었다. 이에 더욱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한 왕건은 나주를 지키는 수군 장수의 인망이 없어 그곳을 보전치 못할까 염려하면서 다시 외직을 청했다. 궁예도 역시 나주는 막중한 곳인지라 '수군의 장수가 인망이 적어서는 적을 누르지 못한다' 고 하고 왕건의 시중 직임을 풀고 백선장군(百船將軍)을 삼아 나주로 출진(出鎭)케 했다. 914년에 왕건이 다시 나주로 가니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주변의 도적이 난동을 못하여 일대가 안정되었다. 그러나 궁예가 그를 언제까지나 나주에 두지는 않으므로 두세 해 만에 또 불려 들어왔다. 궁예는 그 사이 부인과 소생의 두 자식까지 학살한 처지로 제 정신이 아니었다. 왕건이 돌아와 주즙(舟楫)의 이로움과 임기응변의 편의를 설명하니 궁예가 기뻐하며 '나의 여러 장수 가운데 누가 이 사람과 겨루겠느냐' 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반역죄를 꾸며 날마다 사람을 죽이던 궁예는 어느날 왕건을 급히 불러 노한 눈으로 꿰뚫어 보면서 '경이 어젯밤 여러 사람을 모아 반역을 모의한 것은 어째서냐' 고 추궁했다. 왕건이 웃으며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니 궁예가 '경은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므로 안다. 내 지금 선정(禪定)에 들어가 관찰하리라' 하더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한동안 하늘을 우러렀다. 이때 장주(掌奏:승지) 최응(崔凝)이 측근에 있다가 일부러 붓을 마루에서 뜰로 떨어뜨리고는 주우러 내려왔다가 빨리 왕건 곁을 스치면서 귓속말로 '자복(自服)하지 않으면 위태롭다' 했다. 왕건이 알아채고 거짓으로 '신이 진실로 반역을 꾀했으니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니 궁예가 크게 웃고 '경은 정직하다 하겠다' 하고는 금은으로 장식한 말안장을 하사하였다.

이해 3월에 당나라에서 돌아와 철원의 시전(市廛)에서 살던 객상(客商) 왕창근(王昌瑾)에게 용모가 괴위(魁偉)하고 모발이 모두 흰 사람 하나가 나타났는데 옛 의관을 입고 왼손에는 자완(瓷椀:자기 사발)을 들고 오른손에는 고경(古鏡)을 들고서 '이 거울을 사겠느냐' 고 하므로 창근이 쌀을 주고 샀다. 그 사람은 쌀을 거리의 걸인 아이들에게 주고 사라졌다. 거울을 벽에 걸어 두었는데 해가 비치자 가는 글자가 드러나므로 읽어 보니 '삼수중(三水中) 사유하(四維下) 상제(上帝)가 아들을 진마(辰馬:진한과 마한)에 내려보내 먼저 계(鷄)를 잡고 뒤에 압(鴨)을 칠 것이다. 사년(巳年) 안에 두 용이 나타나 한 용은 청목(靑木)에 몸을 감추고 한 용은 흑금(黑金) 동쪽에 형상을 나타낼 것이다. 혹은 성해 보이고 혹은 쇠해 보이는데 성하고 쇠함은 나쁜 진재(塵滓)를 없앨 것이다' 하는 내용이었다. 왕창근이 이를 왕에게 바치니 궁예가 즉시 그 사람을 찾게 했으나 찾지 못했고 다만 철원의 발삽사(勃颯寺) 불당에 있는 진성(鎭星:토성)의 소상(塑像)이 그 사람 모양과 같았으며 양손에 바리때와 거울을 쥐고 있었다.

참위를 좋아하는 궁예가 오래 이상함을 탄식하다가 문인(文人) 송함홍(宋含弘)·백탁(白卓)·허원(許原) 등을 시켜 풀이하게 하였다. 송함홍 등이 이를 풀어보고 서로 속삭이기를 '상제가 아들을 진마에 내려보냈다는 것은 진한과 마한을 말함이요 두 용이 나타나 하나는 청목에 감추고 하나는 흑금에 드러난다 했는데 청목은 소나무이니 송악인(松岳人)으로 용(龍)으로 이름한 이의 손자인데 지금 파진찬 시중(侍中:왕건)을 말함이 아닌가. 흑금은 철(鐵)이니 지금 도읍인 철원을 말함이고 지금 주상(主上)이 처음에 여기서 일어났다가 나중에 멸한다는 참언(讖言)이다.

먼저 닭을 잡고 뒤에 오리를 친다는 것은 시중이 먼저 계림(鷄林)을 얻고 후에 압록강(鴨綠江)을 취한다는 뜻이다' 하고 의논하기를 '지금 주상의 학란(虐亂)이 이와 같은데 우리가 사실대로 아뢰면 우리만 전담격 죽을 뿐이 아니라 파진찬 또한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말을 적당히 맞추어 고하였다.

왕건의 수하 장수 모의와 궁예의 최후

이해 6월 을묘일(乙卯日)에 기병장 홍술(弘述:洪儒)·백옥(白玉:裵玄慶)·삼능산(三能山:申崇謙)·복사귀(卜沙貴:卜智謙) 등이 비밀히 모의하고 밤에 왕건의 집으로 가서 부인 유씨(柳氏)도 모르게 하고자 '동산 안에 새 오이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따 오시오' 하니 유씨가 알아차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 몰래 장막 뒤로 들어갔다. 장수들이 '지금 주상이 형벌을 남용하여 처자를 죽이고 신료를 주륙(誅戮)하니 창생(蒼生)이 도탄(塗炭)에 빠져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혼주(昏主:어리석은 임금)를 폐하고 명왕(明王)을 세움은 천하의 대의입니다. 청컨대 공은 탕무(湯武:탕은 夏의 폭군 桀의 신하로서 걸을 쳐 殷을 세우고 武王은 은의 폭군 紂를 내치고 周를 세움)의 일을 행하시오' 하니 왕건이 정색하고 '내가 충성과 순직(純直)으로 자허하여 왔는데 지금 주상이 포학하다 하지만 감히 두 마음을 가질 수 없소. 대저 신하로서 임금을 교체함을 혁명이라 하는데 내가 실제 박덕(薄德)으로 어찌 감히 은주(殷周)의 일을 본받으리오. 뒷사람이 이를 구실삼을까 두렵소.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루에 임금이 되면 종신토록 임금이라 하였고 연릉계자(延陵季子:춘추시대 吳王의 아우로 왕위를 사양함)는 나라를 차지함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하고 나가 밭을 갈았으니 내가 어찌 계자보다 나으랴' 고 하였다. 그러자 홍술 등이 '때는 만나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우며 하늘이 주는 것을 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습니다. 지금 백성으로 해독을 받는 자는 밤낮으로 보복을 생각하고 있으며 권세와 지위가 높은 이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덕망이 공의 위에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왕창근(王昌瑾)이 얻은 경문(鏡文)이 저러한데 어찌 칩복(蟄伏)해 있다가 독부(獨夫:민심을 잃어 고립된 임금)의 손에 죽겠습니까' 하니 왕건의 부인 유씨가 장막을 제치고 나오면서 '의병을 일으켜 인(仁)으로 불인(不仁)을 치는 것은 예로부터요 지금 여러분의 의논을 들으니 첩(妾:여자의 겸칭)으로서도 분심(憤心)이 나는데 하물며 대장부이겠습니까. 지금 여러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천명(天命)이 돌아온 때문입니다' 하고 손수 갑옷을 내다 왕건에게 바쳤다. 이에 홍술 등이 태조를 부축하고 호위하여 문을 나서며 '왕공(王公)이 이미 의기(義旗)를 들었다' 고 외쳤다. 삽시간에 앞뒤로 따르는 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또는 앞질러 궁성으로 몰려가 북을 치며 소란스레 떠들며 기다리는 무리가 1만이 넘었다. 이처럼 민중이 모두 봉기하니 궁예가 당황하여 어쩔 바를 모르다가 미복(微服) 차림으로 변장해 바위 골짜기로 달아나 산림으로 들어갔다가 굶주림과 고생 끝에 얼마를 가지 못하고 부양(斧壤:평강)에 이르러 백성에게 맞아 죽었다.

壬辰倭亂과 幸州大捷 ④

安東權氏 耆老會長 權 貞 澤 忠莊祠 祭奠委員

〈지난호에 이어서〉

2. 幸州大捷과 權慄

제 1대부터 제3대까지 연패한 것을 지켜본 총대장 우키다는 크게 노하여 선두에 나서자 소속된 제 4대 장졸들도 모두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도 계속 전진 마침내 제1성책을 넘어서 제2성책까지 접근하자 관군은 한때 동요하기 시작했으나 권율의 독전으로 이를 극복하고 전세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며 화차의 총통이 적장에게 집중 사격 되어 우기다 는 부상을 입고 부하의 부축을 받으면서 퇴진하였다. 그리고 이때까지 남아 선두에서 지휘하던 제2대장이시다 역시 부상으로 후퇴하였다.

제5대장 요시가와 는 제4대뒤를 이어 화간으로 성책의 일부를 집중발사 불이 붙게 하였으나 관군은 미리 마련한 물을 뿌려 불을 꺼버리고 질석을 퍼부어 그는 큰부상을 입고 물러나니 그 부하병졸들의 사망자만도 160명이나 발생하였다.

두 대장의 부상에 분노한 제6대장 모리(毛利手元)와 고바야카와(小草川秀秋) 두장 수는 제2성책을 점령하려고 공격을 가하여 왔다. 이때 처 영은 의순군을 이끌고 용감히 맞서면서 차고 있던 재주머니를 풀어 뿌리게 하자 눈을 뜰 수 없게 된 적군은 달아나고 말았다.

왜군은 마지막 남은 제7대로 바꾸어 계속 공격했다. 대장 고바야기와는 노장으로 선두에 서서 서북쪽 자성을 지키던 의승군의 일각을 뚫고 성안에까지 돌입하려고 하자 의승군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급박한 사항에 이르렀다.

이때 주장 권율은 대검을 빼어들고 의승군에 총공격을 호령하자 다시 돌아서서 왜군과 치열한 백병전에 돌입하였고 옆 진영의 관군도 화살이 다하여 투석전을 폈는데, 이때 부녀자들까지 동원되어 일치단결하여 싸웠으며 특히 부녀자들은 치마를 짤게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서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여기에서 행주치마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왜군이 이것을 알고 기세를 올리려 하였으나 마침 경기수사 이빈이 수만개의 화살을 실은 배 두척을 몰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적의 후방을 칠기세를 보이자 적은 이에 당황하여 내성에서 물러가기 시작했다. 성안에 있던 관군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추격하여 적의 머리 130級을 베고 파괴된 내성도 급히 보수하였다.

왜군은 물러가면서 사방에 흩어진 시체들을 모아 불태웠는데 아군은 그들이 버리고 간 甲冑 刀槍 등 많은 軍需物資를 노획하였다. 이중에 중요한 것만도 272건이었고 미쳐 태우지 못하고 버리고 간 시체가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유명한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이다.

한편 명나라의 제독 이여송은 벽제관 부근 만석령에서 대패하고 평양으로 회군하던중 행주대첩의 소식을 듣고 서둘러 회군한 것을 크게 후회하였다고 한다. 대첩이 있은지 3일후인 16일에 전라감사 권율은 휘하병역을 이끌고 파주산성 으로 옮겨가서 도원수 김명원 부원수 이빈 등과 같이 본성을 지키면서 전세를 관망하였다. 그후 권율이 김명원의 뒤를 이어 도원수에 임명된 것은 행주대첩의 공이 많이 작용한 것이었다.

3 幸州大捷의 意義

왜란초 수개월간은 우리 관군이 악전고투하며, 반대로 일본 측에서 보면 승승장구의 위세를 떨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전쟁의 허점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즉 그들은 호남지방이 건재하다는 것을 외면하고 또 후방지역의 경계를 경시하면서 관군만 물리치고 수도만 장악하면 조선이 스스로 항복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점령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행주대첩이 있기 전까지 의병이나 관군에 의한 크고 작은 많은 싸움 중에서 우리가 이긴 싸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의병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우리 의병이 이긴 싸움만 보더라도 의병장 郭再祐 鼎菴律勝捷 權應洙의 永川收復戰 招討使 李延菴 沿岸大捷 鄭文采 北間大捷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권율 장군의 이처대첩도 왜군으로 하여금 호남곡창지대를 방어하고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을 견고히 하는 계기를 주었다. 관군에 의한 晉州大捷은 壬辰倭亂의 大捷중 손꼽히는 큰 싸움이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지만, 전세를 역전 시키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며, 난국을 만회하여 관군이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하는 대 그쳤다. 그러나 행주대첩은 우리관군이 제기하였다는 것을 싸움으로 실증한 것이며 관군의 연전이 이 대첩으로 확실하여 졌다.

특히 행주대첩은 서울의 수복을 목전에 두고 전의를 상실한 명나라 원군에게 반성과 용기를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평양 패전이후 복수전이라 할 수 있는 행주대첩에서의 왜군재패는 왜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일본 측이 강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도 행주대첩 직후였다는 것은 많음을 시사한다. 〈다음호에 계속〉

△행주대첩도(행주산성 도원수 동상 뒤 동판)